

스리랑카 개발포럼(2007) 회의 결과

2007년 스리랑카 개발포럼 회의가 Rajapaksa 대통령 및 Amunugama 장관을 비롯한 각부장관 10여명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공여국 및 UN, ADB,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9(월)~30(화)간 주재국 Galle에서 개최되었음.

I. 회의 주요 내용

1. 개회식

가. Rajapaksa 대통령 연설요지

- Rajapaksa 대통령은 LTTE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북부 및 동부주 피해복구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기는 했으나 쓰나미 피해이후 주요원조국 및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지난 2년간 피해 복

구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함.

- 또한 동 대통령은 Mahinda Chinthana에 따라 2006~2016간 스리랑카 중기개발 정책 목표를 수립, 중소득국가(Middle income country)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을 요청함.

- Rajapaksa 대통령은 테러방지 및 평화정착, 전력, 교통, 항만 등 인프라 개발, 농촌개발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식기반경제구축 등에 노력하겠다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함

※ Mahinda Chinthana는 Rajapaksa 대통령이 2005 대선시 공약한 스리랑카 중장기 발전 비전임.

나. 원조국 대표 연설 요지

- Blake 미국대사는 미국정부가 쓰나미 피해 발생 후 교량, 항만, 보건, 교육분야에서 스리랑카의 재건을 지원하였으며 스리랑카-LTTE간 평화협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평화적 수단으로 인한 민족분쟁(ethnic conflict) 해결 방안으로서 민족간 권력공유(power sharing)를 언급함.
- Jain 인도 외교부차관보는 인도가 남아시아 경제통합 강화와 남-남협력 차원에서 스리랑카의 쓰나미 피해복구 뿐 아니라 무역, 투자 분야에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동부 Trincomalee에 5억불 규모의 발전소 투자협력 등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일본 외교부 경제협력국의 Takahashi 심의관은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평화정착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이 경제지원 뿐 아니라 스리랑카의 peace process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다. 국제기구 대표연설

- Patel 세계은행 부총재는 그간 쓰나미 복구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치안문제로 인한 동부 및 북부의 복구지연이 스리랑카 개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Mahinda Chinthana 계획에 따라 지역간 격차, 도시-농촌간 경제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 있다고 언급함.

- Lyons UN 스리랑카 사무소 대표는 스리랑카의 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을 위해 빈곤타파, 재난방지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인권보호와 평화정착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며, ADB의 Jin 부총재도 스리랑카의 민족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GDP의 4%에 달하며 중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언급함.

2. 세션 1 : 정치·경제적 측면 (Political Economy in Context)

가. 발제 주요 내용

1) 스리랑카 경제현황(Jayasundera 재무기획 부차관)

- GDP 성장률 : 1978년 이래 최고의 성장률로서 2007년 1/4분기 7.8% 기록
- 공공부채 : GDP의 90%로서 2004년 105%에서 감소

- 석유수입(2006) : 2004년 석유 수입액의 두배 수준인 20억불로서 국가경제의 큰 부담

■ 중장기성장계획

- 인프라개발
- 농촌개발
- 지식 기반 경제 추진
- 정치경제 이슈 해결노력 : 안보 · 평화구축, 국제경제 충격 완화 등

2) 거시경제현황(Cabraal 중앙은행장)

- 실업율(2006) : 최저수준인 6.3% 기록

- 해외노동자 송금액(2006) : 23억불

- FDI(2006) : 5억불을 최초로 초과함.

- 2007년 GDP 성장률 전망 : 7% 이상 예상

- 거시경제과제 : 인플레이션 억제, 소득차별화 해소

3) 쓰나미 복구 현황(Abeygunawardena 재무기획부 국장)

■ 피해 복구 현황

- 주택 : 피해 가옥의 51% 복구(남부 : 89%, 북부 : 22%)

- 생계회복 : 어업, 관광, 농경지복구가 각각 70%, 90%, 84% 진행

- 보건 : 피해병원 및 피해학교의 각각 23%, 10% 복구

- 인프라 : 5개 교량 복구가 진행중이며 18,000 가구의 전력공급이 재개

■ 재건과정 문제점

- 건설비용 증가에 따른 재원 추가 소요, 민족 분쟁에 따른 북부 · 동부지역의 복구 지연, 재난복구 부처간 협조 미진, 복구성과 평가 및 재조정 메카니즘 부족

4) 치안 · 테러 문제(Rajapaksa 국방차관, De Silva 외교부 차관보)

- 스리랑카는 국가분열 방지 및 국민적 합의 형성, 항구적 평화달성이란 측면에서 LTTE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테러리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 바, UN 등 국제사회도 스리랑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 스리랑카 군 · 경찰은 LTTE의 지속적 테러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인 보호, 인권보호에 노력중

- LTTE는 2002년 이후 정전협정을 수없이 위반해 왔음에도 스리랑카 정부는 LTTE와의 평화회담 진전에 노력해왔으며 북부지역을 포함

한 모든 스리랑카국민의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나. 참석자 토론 요지

- IMF 대표는 스리랑카 거시경제 과제로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관리 강화, 환율에 대한 중앙은행 개입 축소,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언급함.
- 호주와 캐나다 대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회담 진전이 중요하다면서 스리랑카 정부가 NGO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권보호와 NGO 활동 지원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함.

3. 세션 2 : 민족갈등, 재난방지, 인권문제

가. 발제 주요 내용

- Samarasinghe 재난관리부 장관은 스리랑카가 상설 인권위원회 및 정부부처간 각종 인권 협의체를 설립하여 국제기구, NGO, 원조국들과 인권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 De Silva 검찰총장은 스리랑카가 1899년 이래 불법적 구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도

고문금지, 불법적 구속 금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과 인권위원회를 통해 일반 시민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함.

- 북부 및 동부지역 피난민 인권보호 관련, Jayasinghe 국가건설부 차관은 피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ople : IDP) 재정착을 위해 주택 8만호 건설, 보건·교육시설 재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Jaffna 지역의 경우 LTTE의 공격 위협으로 Colombo-Jaffna간 주요도로인 A9 도로를 지난 8월 차단하기는 했으나 생필품, 식량 등을 해상로 등을 통해 계속 공급하였다고 설명함.

나. 토론

- 스위스, 노르웨이 대표는 북부 및 동부주에서 치안문제로 쓰나미 복구지원 NGO들의 활동이 제한되어 복구지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국제적십자사 및 NGO의 활동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UNDP, 캐나다 대표도 북부 및 동부지역의 민간인 보호,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4. 세션 3 : 중장기 개발계획(Mahinda Chinthana)

가. 발제(Jayasundera 재무기획부 차관)

- Jayasundera 차관은 지난 30년간 스리랑카 경제개발 노력의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 따라 실질적 경제성장을 위한 fast-track 정책으로서 Mahinda Chinthana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향후 10년동안 연 6-12%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Mahinda Chinthana의 분야별 목표로서 GDP대비 5-7% 공공투자달성, FDI 증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적자 축소, 노동생산성 증진, 농촌개발 및 수익성 증대를 제시함.

나. 토론

- IMF 대표는 스리랑카 산업구조가 서비스 중심이며 공공부채 수준이 타국에 비해 높은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억제가 중요과제라고 지적하고, 과도한 성장보다는 6-7%의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과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증진, 노동생산성증진방안을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ADB 대표는 전통농업분야의 생산성 증대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으며, 스위스 대표는 스

리랑카 중기계획 이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로 부채 상환 부담, 부패문제, 민족갈등, 자연재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언급함.

5. 세션 4 : 인프라 및 교육,보건

가. 발제 주요 내용

1) 도로(Amarasekara 고속도로부 차관)

- 스리랑카의 도로는 대부분 50여년전 건설되어 노후되었으며 차량증가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바, 쓰나미 피해도로 복구와 함께 고속도로 건설, 국토확장, 지방도로 확충사업을 진행
- 주요 계획
 - Colombo-Kandy간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5개 고속도로 600km 건설을 추진
 - 국도 150km를 4차선으로 확대하고, 5,000km를 2차선으로 확대
 - 지방도로 6,000km를 복구 및 개선할 계획

2) 항만 및 공항(Collure 항만-항공부 차관)

- 콜롬보항 확충(ADB), Galle항 개선(JBIC), 함반토타 항만개발(중국) 등을 위해 2016년까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 반다라나야케 국제공항 확충 및 함반토타 국제공항 건설을 2009년까지 추진하고 open sky 협정체결 등 항공서비스 자유화도 아울러 진행

3) 전력

- 2016년까지 전력보급율을 96%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Trincomalee 석탄화력발전소 등 전력공급 확충 및 전력보급 효율성 제고에 노력

4) 교육(Hewage 교육부차관)

-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수준 향상, 교육시설 개선, 학업부진 학생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확충, IT 교육확대, 영어교육 시설 증대 등을 중장기 교육정책 주요 목표로 제시

5) 보건(Kahandaliyanage 보건부 차관)

- 북부·동부지역 및 농촌지역의 보건시설 확충, 보건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해 2009년까지 보건분야 지출을 GDP 대비 1.9%에서 2.5%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을 요청

나. 토론

- ADB 대표는 인프라 분야에서 민간분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투자제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고 지방도로 개선, 신설 항구 건설과 관련 국제경쟁력 확보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일본 대표는 지속적 경제개발을 위해 에너지 분야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UNICEF 대표는 북부 및 동부지역 교육시설 복구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6. 세션 5 : 원조

가. 국제사회의 원조 및 주요 원조사업 (Cooray 재무기획부 국장)

1) 개요

- 2006년 해외원조액 규모 : 1,220백만불(무상 : 195, 유상 1,025백만불)
 - 정부지출의 17%, GDP의 4.5% 규모
- 2007-2009년 해외 원조 예상액 : 45억불
 - 2007 : 23억불, 2008 : 18억불, 2009 : 4억불

2) 2007-2009 주요사업 계획(단위 : 백만불)

■ 항만

- 콜롬보항 확장사업(300), 함반토타항 건설(310), Oluvil항 사업(44) 등

■ 도로 · 철도

- 콜롬보 외곽고속도로(185), 콜롬보 지역도로망 2차 개선사업(150), 도로망 개선(150), 북부 (Jaffna) 고속도로 건설 (250), Colombo-Katunayake 고속도로(200), Colombo-Matara 철도망 개선(100)

■ 전력

- Kerawalapitiya 열병합 발전소(210), Jaffna 발전소(20), 북동부 송전선 확충(30) 등

■ 상수도

- Jaffna(65), 네곰보(52), 콜롬보(50), Ampara(92) 등

■ 교육

- 남동대학 개선(9), 니아가마 직훈 개선(9)

■ 어업

- Dickovita항(60), 어업항만(21)

나. 우리측 발언요지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해 41백만불의 유무상 원조를 지원하였으며 교량, 병원 등 분야에서 4개 사업을 남부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Mahinda Chinthana 계획의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인프라, 보건, 인적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스리랑카와 개발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함.

■ 또한, 북부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Jaffna 기술 대학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부주 도로통제로 인해 건축자재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스리랑카 정부가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II. 관찰 및 평가

■ 금번 포럼에는 주재국 Rajapska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이 대거 참여하였는 바, 스리랑카측은 동 포럼을 통해 2년간의 쓰나미 복구진행 상황과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 주요 원조국 및 국제기구에 상세히 브리핑함으로써 스리랑카의 쓰나미 복구와 중장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관심환기 및 지원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관찰됨.

■ 그러나, 쓰나미 피해 발생직후 개최된 지난 1차 회의에 비해 원조국들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보이며 동 포럼에서 새로운 지원계획을 발표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없었음(본부 고위인사가 참석한 국가는 인도와 일본뿐임)

- 또한 회의가 주요 이슈들에 대해 주요원조국과 협의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스리랑카 정부의 개발목표와 정책에 대해 원조국에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원조국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

■ 쓰나미 복구 과정에 대해서 스리랑카 정부와 원조국들 공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나 LTTE와 분쟁으로 인해 북부 및 동부지역에 대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는데 인

식을 같이하였고,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원조국 및 국제 NGO에 활동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확대와 스리랑카정부 - LTTE간 평화회담의 진전을 위한 노력확대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스리랑카측은 동 포럼에서 향후 개발중점 분야로서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우리의 대스리랑카 유상협력사업 선정시에도 인프라분야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자료: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대사관]